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기 (가톨릭 간호대학생)

정 나 영
(가톨릭간호대학생)



간호대학 교수님들께서 4년간 성적이 사위 10%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는 일본연수를 보내주신다는 신입생 홍보책자의 내용을 보면서,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나였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막상 연수생으로 선정되고 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날, 나와 가을, 민숙, 민경, 은숙, 원희 우리 6명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땅의 병원 문화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냥 설레었다. 한 시간 남짓 걸린 비행 후 우리는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의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우리를 환영해 주실 학교 관계자 분과 통역선생님께서 나와 계셨다. 우리가 5일간 연

수를 받을 병원은 후쿠오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의 구루메라는 도시에 있는 성 마리아 병원으로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규모가 큰 병원이었다.

다음날 오전부터 시작된 실습은 먼저 그곳 간호대학 학장님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그로 인해 생겨난 개호보험제도 등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을 스케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사회로 가는 과도기적 국가이기에 개호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의 후 병원의 전체를 라운딩 하면서 시설이나 병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의 시설이 매우 크고 환자를 배려한 시설과 전통적인 의상을 이용한 환자 복이 눈길을 끌었다.

GICU 에서는 실습중인 일본 학생들과 함께 실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간호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중환자실 역시 넓은 공간으로 각 환자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기본 간호가 철저히 실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의 발달된 목욕문화의 영향으로, 중환자 역시 철저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환자들

을 사랑하며 간호하는 마음이야 어느 나라 간호사들이나 다 같겠지만, 그러한 훌륭한 시설에서 환자에게 간호가 행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간호가 수행될 것 같아 부러웠다. 다음 실습처는 성모병동이었다. 성모병동은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를 하는 병동으로 질환 중심의 병동과 케어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병동으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케어 위주의 병동은 양로원 시설과 같이 노인이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데이케어 서비스도 함께 병행되고 있었다. 노인 병동 역시 대상자 중심이었으며, 일본의 노인들의 넓은 병동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다.

우리는 노령인구에 대한 질환 중심의 간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돕는 케어 중심의 역할도 보장해 주는 개호보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40세 이후부터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호보험은 노령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한 명의 대상자마다 의료보험과 개호 보험의 서비스 중 어느 서비스를 받게 될 지를 판단하는 역할에 간호사가 참여하며, 그 후에 개호보험 지원대상으로 판단된 환자의 경우 단계에 따라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들었다. 간호사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일본 노인간호분야에서 돋보이는 듯 했다.

노인병동 견학 후 방문한 호스피스병동은 우리나라보다 그 시작은 늦었지만 시설 면에서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다. 특급 호텔 수준의 시설과 환자 및 가족을 위해 배려한 공간들이 인상 깊었다. 특이했던 것은 호스피스 병동 내에 Bar를 설치하고 주류를 비치하여 환자가 원하면 술도 마실 수 있도록 되어있

는 점이였다. 일본은 정부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아서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의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호스피스 기관의 수가 일본적역에 400여 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호스피스 발전과 모든 사람들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간호사와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마리아 병원이 내세우는 신생아실은 WHO collaborating center로서, 명성에 걸맞게 규모와 시설이 훌륭하며 간호사들의 자부심도 높았다. NICU에 머물던 신생아들은 초등학교까지 추적 관찰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의 모유수유율 4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성 마리아 병원의 경우 집중치료실에 보관하고 있던 모유를 넣은 젖병을 아이들에게 물렸다. 수유시간에는 모유 수유를 위해 엄마들이 면회를 와서 젖을 먹이고 있었다. 당연히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수유문화를 보면서 우리의 수유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기계장치가 필요한 아기에게는 필요한 기계들을 임대해 주어 모두 집으로 갖고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병원에 있는 것보다 엄마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되도록 집으로 보내기 위한 배려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동선을 줄이면서 환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minil station, 넓은 복도와 각 환자마다의 공간을 확보한 병실, 곳곳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 철저한 손 씻기를 실천하는 모습 등이 인상

적이었다. 또한 각종 기계나 기구를 연결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질까 봐 천장에 매단 전선기둥에서도 안전을 우선시 하는 병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병원은, 각종 편의 시설은 물론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공간을 아끼지 않았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친절과 간호가 병원 전체의 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의료제도, 병원시설, 간호정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나를 책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 병원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의료 시스템 의개발과 간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잊지 못할 시간이었으며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학생으로서는 물론 간호계의 한사람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